논어 10편 향당 18장 · 원문·풀이

色斯擧矣，翔而後集。曰：「山梁雌雉，時哉時哉！」子路共之，三嗅而作。

독음 · 색사거의 상이후집 왈 산량자치 시재시재 자로공지 삼후이작

쉬운 풀이(요약) · 새는 낌새를 느끼면 날아올라 살핀 뒤 내려앉는다. 산마루의 암꿩이 때를 아는 모습을 칭찬하며, 때에 맞는 처신을 드러낸 장이다. 마지막 문장의 해석에는 이견이 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色 빛 색 색 / 斯 이 사 사 / 擧 들 거 거 / 矣 어조사 의

翔 빙빙돌아날 상 상 / 而 말이을 이 / 後 뒤 후 후 / 集 모일 집 집

曰 가로 왈 / 山 뫼 산 산 / 梁 푸조나무 량 량 / 雌 암컷 자 자

雉 꿩 치 치 / 時 때 시 / 哉 비로소 재 재 / 子 아들 자

路 길 로 로 / 共 함께 공 공 / 之 갈 지 / 三 석 삼 삼

嗅 맡을 후 후 / 作 지을 작 작

본문 교정: 疑斯擧矣 → 色斯擧矣 (논어집설의 色斯擧矣와 대조, 疑 오자 교정)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